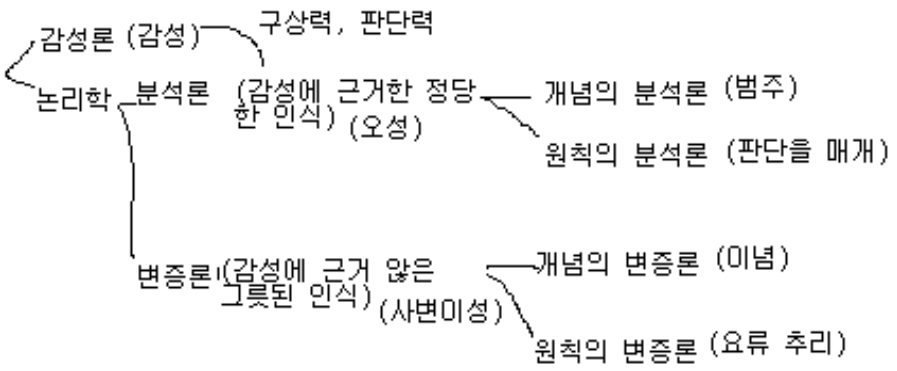
제12강 선험적 변증론

◆선험적 변증론 서론
(1교시)
※학습목표:

▲『순수이성비판』의 구조



-개념론은 개념 하나하나를 말한 것이고, 원칙론은 명제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원칙론이고 개념론은 원칙론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 할 수 있다. 선험적 변증론도 개념론과 원칙론으로 나뉘어 있다.

▲선험적 가상
「**1.선험적 가상**」
-변증론은 가상의 논리학이다. 분석론은 진리의 논리학이다.
-현상과 가상은 다르다. 현상은 적합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차원이고, 가상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알려는 것이다. 그래서 가상적이란 것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경험적 가상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u>경험적 가상</u>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적 가상은 보통은 정당한 오성규칙을 경험적 [감각적] 으로 사용할 즈음에 생기는 것이요, 이때에 판단력이 상상 작용의 영향을 받아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경험적 가상은 우리가 잘못 감각하는 것(착각)이다. 이는 선험적 가상과 다르다. 이미지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미지들이 불러일으킨 착각)이다.

*참고사항
오늘날의 경험적 가상: 19세기 전반까지의 사람들에게 경험적 가상이라 해보아야 지금의 가상현실과는 달랐다. 그러나 지금과 옛날의 감각적 세계는 전혀 다르다. 또한 그래서 오늘날에는 경험적 가상의 문제는 엄청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칸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

www.artnstudy.com

로 보고 있다.

▲선험적 가상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오로지 선험적 가상이다. 선험적 가상은 경험하는 것을 노려서 사용되지 않는 원칙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원칙이 경험에 대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적어도 그 원칙의 정당성을 음미하는 시금석을 〔경험 중에서〕 가질 것이다. 그러나 선험적 가상은 비판의 모든 경고에 위반해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범주의 경험적 사용을 넘어서게 하고, 순수한 오성을 확장할 수 있는 듯한 환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낚고 있다.」

-선험적 진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인식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와 같은 인식을 하게 해주는 조건들이다.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오성의 범주와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비가 오는 것과 땅이 젖는 것을 연결시켜 볼 수 없다.) 이러한 선험적 조건(진리)을 분석하는 것이 분석론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험적 가상이란 우리로 하여금 거짓 인식을 하게 만드는 조건(경향)이다. 그리고 그 경향을 갖게 하는 대상이다.

-비판이란 사변이성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경고.

-여기서 순수오성을 확장한다는 것은 가능한 경험의 한계 너머로 간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경험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비파철학의 경고를 무시하고 물자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또는 그런 경향을 부른 대상이 있다. 그것이 선험적 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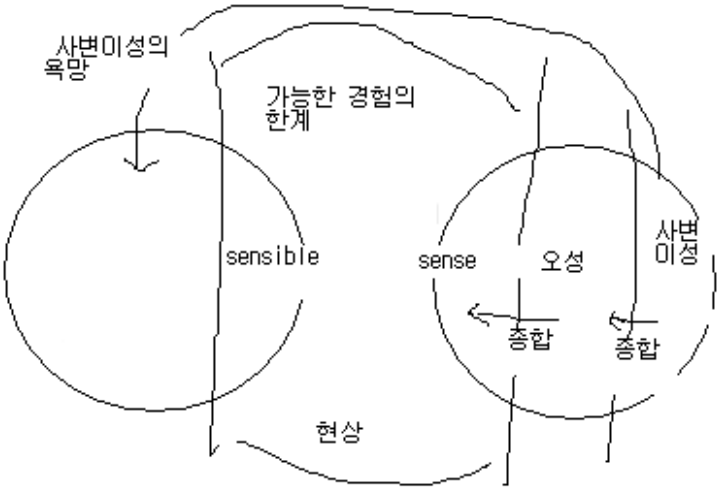
▲내재적 원칙과 초험적인 원칙

「우리는 가능한 경험의 울타리 내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을 내재적인 원칙이라 하고, 반대로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원칙을 초험적인 원칙이라 말하고자 한다.」

www.artnstudy.com

◆선험적 가상의 역할
(2교시)
※학습목표: 선험적 가상의 의미를 살피고 그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다.

▲선험적 가상의 의미
「선험적 가상은 우리가 그것을 발각하여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험적 비판을 통해서 통찰했다 하더라도 역시 없어지지 않는다. (중략) 오성의 권위를 위해서 개념들을 연결하는 <u>주관적 필연성(사변이성)</u>이 물자체를 규정하는 <u>객관적 필연성</u>으로 보아지는 데에 있다.」
-'인간은 형이상학적 동물이다.'라는 뜻이다. 인간은 형이상학적 동물이기 때문에 설사 비판을 통해 그와 같은 인식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더라도 그러한 경향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변이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종합해서 얻은 이성의 인식은 다양하다. 오성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과학들이다. 그런데 과학들은 정돈하고, 종합하고, 통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합은 사변이성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철학이다. 인식맥락에서는 과학들을 종합하는 것이 철학이다.)
-사변이성이 과학들을 종합하는 역할까지는 인정하지만, 물자체를 알려는 것은 거부한다. 사변이성을 통해서 물자체를 규정하는 객관적 필연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를 선험적 환상transendental illusion(선험적 가상)이라 한다.

▲선험적 변증론의 목적
「그러므로, 선험적 변증론은 초험적 판단이 가상인 까닭을 폭로하고, 동시에 이 가상에 속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서 만족하겠다.」

▲사변이성의 역할
「오성이 <u>규칙</u>들을 매개로 해서 현상들을 통일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성은 오성의 규칙들을 <u>원리</u>들 아래로 통일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성(사변이성)은 처음부터 경험 혹은 어떤 대상에 관계하지 않고 오성에 관계한다. 이것은 오성의 잡다한 인식에다 개념 〔이념〕에 의해서 선천적인 통일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통일을 「이성의 통일」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것은 오성이 하는 통일과는 아주 별종의 것이다.」

www.artnstudy.com

-오성은 현상들을 통일한다. 사변이성은 그 오성들을 통일한다.
-각각의 원리는 자기 원리를 가지고서 종합을 한다. 그러나 사변이성은 원리들만 다 모으는 것이다. 원리들의 체계system을 사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변이성의 역할이다.
-본 문단에서 원리와 규칙을 구분해야 한다. 오성의 규칙이고 사변이성의 원리다.

*참고사항
 과학적 종합과 철학적 종합
-과학은 현상과 직접 만나는 것이다. 반면 철학은 과학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만나는 것이다. 의미가 다른 종합이다. 즉 과학책을 읽으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철학책을 읽으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는다. 철학은 과학에서 나온 담론들의 종합이다.
-그런데 칸트는 철학자들은 이렇게 종합하는 가운데 물자체를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자크 데리다, 김융권역, 동문선

www.artnstudy.com

◆선험적 변증론의 이념
(3교시)
※학습목표: 선험적 변증론의 이념이 무엇인지 살핀다.

▲선험적 변증론
-오성이 구사하는 개념들은 범주다. 반면 사변이성이 구사하는 개념은 이념Idee이다. 우리가 정당한 인식을 얻는 데에 구사하는 개념이 범주고, 논하지 못할 물자체에 대해서 말할 때의 개념은 이념들이다.

▲이념Idee : 궤변적 개념
「이성의 개념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추리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성의 개념은 바른 추리의 탈만을 쓰고 나타난 것이요, 따라서 「궤변적 개념」이라 해도 좋다. 그러나 이 점은 순수이성의 변증적 〔사이비〕 추리의 장에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여기서는 이 점을 돌보지 않기로 한다. 오성의 순수개념이 범주라고 불렀듯이 여기서는 이성(사변이성)의 순수개념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서 이것을 선험적 이념이라고 하고, 이하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까닭을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한다.」
-플라톤의 Idea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고, 칸트의 Idee는 객관적으로 실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믿는 것이다. 그것이 선험적 이념이다.

▲이데아와 이념
「플라톤은 이념Idee이라는 말을 썼으나 그 말로써 그가 이해했던 것은, 감관에서 빌려온 것이 아닐뿐더러,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룬「오성」의 개념조차도 넘어섰다(이념에 합치는 것이 경험에는 전혀 없기에)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바다. 이념은 플라톤의 경우 사물 자신의 원형이요, 범주처럼 가능한 경험을 위한 열쇠임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사상에 의하면 이념은 최고이성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에서 인간이성에 분여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성의 현상은 이성의 원초적 상태 중에 있지 않고, 지금은 매우 불명백하게 된 옛 이념을(철학이라고 부르는) 회상에 의해서 불러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idea)는 우리의 의식, 마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물들의 원형이다.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 존재들은 이데아들을 모방하고 있다(현상적 존재와 이데아의 관계).
-칸트는 현상계 너머에 이데아가 실재한다는 플라톤의 존재론적인 언급을 부정한다. 주체 속에 있는 선험적인 관념으로의 이념이지, 사물과 떨어져 있는 실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주체가 주관적 필연성을 객관적 필연성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플라톤이 이에 대한 전형적 인물이다. 관념을 실체화한 것이다.

▲이념과 객관적 실재
「플라톤은 확실히 자기의 개념 〔이념〕을 사변적 인식에도 확장해서 〔인정하였으나〕, 이것은 사변적 인식이 순수하게 즉 전혀 선천적으로만 주어졌을 경우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학이 그것의 대상을 가능한 경험에서만 가짐에도 불구하고 수학에까지 확장했다. 이 점에서 나는 그를 따를 수 없다. 또 이런 이념들의 신비적 연역에서도 즉 그가 이념을 실체화한 과장에서도 그를 따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 분야 〔이념〕에 관해서 사용한 고상한 언어는 사물의 본성에 합치

www.artnstudy.com

해서 아주 온당하게 해석할 수가 넉넉히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자기 이념을 이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 실재함으로 투영해서 사변이성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확장은 우리가 이념을 선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플라톤의 칸트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이다. 이데아가 실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지식들의 종합이란 측면에서 긍정하는 것이다.

▲사변이성의 역할
「**무릇 자연에 관해서는 경험은 우리에게 규칙을 보내주고, 경험이 진리성의 원천이다. 그러나, 도덕법에 관해서는 경험은 (유감스럽게도) 가상의 어머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관한 법칙을 〔경험적으로〕 행해지는 일에서 이끌어 내고, 혹은 이것에 의해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배척할 일이다. 〔이상의 몇 토막에서 이미 칸트의 윤리적 이상주의가 엿보인다.〕** 」
-앞서 사변이성이 경험을 넘어서 물자체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데 칸트는 인식의 차원에서 건너 뛴 것은 비판했지만, 도덕에 문제에서는 건너뛰어야 한다고 한다. 도덕의 문제는 반드시 경험을 넘어선 물자체 영역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칸트와 데카르트의 이원론
-도덕적 당위란 경험에서 연역될 수 없다. 이점에서 칸트의 철학은 데카르트를 잇고 있다.
(헤겔은 스피노자를 베르그송은 라이프니치를 잇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현상세계에서는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에 현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한 현상계는 기계론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만 도덕률 속에 살고 있다. 도덕률은 그러나 경험으로 연역되지 않는다.
-즉 인간은 기계론적인 측면(현상계의 측면)과 도덕계의 측면에서 살고 있다.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지닌 존재다. 이는 결국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온다. 실체적으로 두 측면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두 가지 실체(영혼과 육신)의 사이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칸트는 현상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 사이에 유기체가 있고, 심미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두 실체의 사이를 메운다.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것이 판단력 비판이다.

▲세계, 영혼, 신
「**모든 순수개념은 일반적으로 표상들의 종합적 통일을 일삼지만, 순수이념의 개념(선험적 이념)들은 모든 제약 일반의 「무제약적」인 종합적 통일을 일삼는다. 따라서 모든 선험적 이념은 다음의 세 급 중의 어느 것에로 들어간다. 첫째는 생각하는 주관의 절대적(무제약적) 통일(영혼)을, 둘째는 현상 제약들의 계열의 절대적 통일(세계)을, 셋째는 사고일반의 모든 대상의 제약인 절대적 통일(신)을 포함한다.**
생각하는 주관은 심리학의 대상이다. 모든 현상의 총괄(즉 세계)은 우주론의 대상이다. 생각될 수 있는 만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제약을 포함하는 것은 신학의 대상이다. 이렇고 보면 순수이성은 선험적 심리학에 대해서, 또 선험적 우주론에 대해서, 끝으로 하느님의 선험적 인식(선험적 신학)에 대해서 각각 그 이념을 주는 것이다 이런 학문들 중의 어느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 하건 간에, 한갓 기획조차도 오성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선험적 이념들이란 전통형이상학의 연구대상 '세계, 영혼, 신'이다.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www.artnstudy.com

인 이념들 역시 중세 이래로 내려온 사변적 형이상학의 대상들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험적 이념들은 세계, 영혼, 신이다.
-이때의 심리학은 영혼에 대해서 다룬 중세의 심리학이다.

www.artnstudy.com